

# 공장 유치·농어업 활성화 한목소리

## ■6·4 재보궐선거 영광군수 후보 공약 살펴보니 일부 후보들, 대책 없는 '장밋빛 공약' 여전

이번 6·4 보궐선거에서 영광군수 후보로 등록한 9명은 공장유치, 농·어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저마다의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여건 업그레이드,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 공약도 내놨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거나 재원마련 대책도 없는 프로젝트를 공약에 포함시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기호 민주당 후보는 40만평 규모 공장을 유치,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농산물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수산물 산지자율관리시설도 다짐했다. 영광조선

소 완성 및 배후단지 건설, 영광고의 기숙형공립학교 육성 등을 밝혔다.

김규현 무소속 후보는 영광 토요 명물시장을 유치하고 농·수·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인터넷쇼핑몰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약속했다. 또 특산물 공동브랜드화, 원광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등을 제시했다.

김성환 무소속 후보는 쌀떡주 공장 유치, 농산물 친환경 단지조성, 칠산지구 임해산업단지 조성, 천일염·젓갈산업 전국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 체류형 관광도시 육성, 백제불교 박물관을 건립 등의

청사진도 마련했다.

김연관 무소속 후보는 100만 평 규모의 기업을 유치, 1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또 해안도로 관광지 개발, 스포츠타운 조성, 영어회화 학습소 설치·운영, 특산물 유통시스템 마련 등도 다짐했다.

김천식 무소속 후보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확대,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 추진, 산·재생에너지 사업화로 소득원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권역별 도서관 건립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도 약속했다.

장현 무소속 후보는 화훼수출 전문단지 및 수출전문점 유치, 유리온실 특구 지정, 아열대식물원 및 수족관 민자유치 건설, 에너지 특화 산업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및 청정에너지 기술센터 건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대갑 무소속 후보는 인재육성, 문화콘텐츠 개발, 산업개발, 관광개발, 원전이용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축제 개최, 회타운 건립, 굴비·뽕잠이 산지유통센터 건립, 전기로 감면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기상 무소속 후보는 굴비·뽕잠이 수출산단단지 조성, 영광 천일염브랜드 명품화, 원지역·국제화만 산업특구 유치, 해룡고·영광고 명문고 육성 등을 다짐했다. 또 장수연금 지원과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최종걸 무소속 후보는 조선대 공과대학을 생산리 일대에 유치하고, 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대체의학과 동약학을 가르칠 원광대 제2캠퍼스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총협기자 redplane@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통합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25일 당산동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당권 레이스 스타트

### 정세균 "강한 수권 정당 만들더" 당 대표 출마 선언 원혜영-김부겸 단일화 성사... 원내대표 '3파전' 재편

7·6 전당대회를 40여일 앞두고 통합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속속 출마선언을 하면서 경선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5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27일 원내대표 경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 주자는 제각기 차별화된 슬로건을 앞세우는 한편 6·4 재보궐 선거 지원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본격적인 세규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의원은 25일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열과 패배의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당을 강한 야당으로 환골탈태시켜 국민이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강력한 수권정당으로 만들어내는 데 신명을 바치겠다"며 대표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회견에서 민주당이 대안 있는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구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변화와 도약" 그리고 "뉴(New) 민주당"을 핵심 슬로건을 제시했다.

민주당 당 대표 선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추미애 당선자도 재보선 지원에 역량

### 한나라 전남위원장 박재순씨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지난 2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박재순 현 도당 위원장을 차기 위원장으로 재선출했다.

전남도당은 운영위원회에 앞서 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지난 19일 후보 등록을 공고했으며, 박 위원장이 단독 출마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현안 관련 정책과 예산을 챙기고, 지역과 중앙을 잇는 교량 역할에 힘쓸 것"이라며 "당원들이 화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 출신인 박 위원장은 강진군수와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후보 등을 거쳤다. /총협기자 redplane@

## 여야 '임시국회 재소집' 첨예 대치

### 野 18대 원 구성 연계 '장의 투쟁' 검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농식품부장관 해임안 부결은 쇠고기 논쟁을 마감하고 한미 FTA를 비준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27일께 쇠고기 위생안전 조건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공포하고 26~29일 임시국회를 재소집, 17대 국회 임기 내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에 불응하는 한편 쇠고기 문제를 18대 국회 원구성과 연계하고 18대 국회 등

원 거부와 장의투쟁까지 검토하고 있어 정국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현지 도축장 위생 검역 점검단이 26일 귀국하면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된 수입위생조건과 이후 추가합의에서 보장된 검역주권 등을 담은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27일께 관보에 올리고 지난해 10월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8개월만에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강제집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가 조만간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임시국

회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고시를 강행할 경우 행정절차법 위배를 이유로 고시무효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또 쇠고기 문제를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연계하고 장의투쟁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노당 박승을 대변인도 "18대 국회 연기를 포함한 강경투쟁으로 가야 한다. 어차피 5석 정당으로서 (이런 경우) 거리로 나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다"면서 "일단 강기갑 의원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데 고시가 강행되면 더욱 강한 시위,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진보→보수 문국현 '궤도 수정' 역풍

#### "아합 위해 정체성 버렸다" 당원들 잇달 탈당 등 내홍 조짐

의 표리표를 뒀다.

그는 25일 "기업체 대표이사를 13년이 나 한 만큼, 원칙을 중요시 한다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동시에 항상 개혁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창조적 보수'라 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설명했다.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이념성향을 "중도에서 약간 진보적인 쪽"이라고 설명했던 것을 감안하면 180도 달라진 대목. 그는 당시 구여권의 대선주자 대안카드로 러브콜을 받았으며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구여권 합류에 대해서도 "중도보수이지 진보라 할 수 없다"고 공개 비판했었다.

이 때문에 그의 이념적 노선 수정을 두고 명분 없는 이합집산을 위해 고유 브랜드를 벗어던졌다는 파가운 시선이 적지 않고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게 감지되는 등 내홍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당장 당 홈페이지에 비판의 글이 쇄도하는가 하면 탈당 의사를 밝히는 당원들도 줄을 잇는 등 벌써부터 지지층 이탈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홍준표 이변주 회동... '친박 복당' 급물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홍준표 신임 원내대표 당선자가 이르면 26일 만나 '친박 복당'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당선자는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 전 대표와 이번 주 안에 만나기로 얘기가 됐다"며 "(복당 문제는) '한지분처(還之本處: 원래의 곳으로 돌아오는 것)'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다"고 친박 복당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 당선자는 박 전 대표와의 회동 날짜에

대해선 "박 전 대표와 이번 주 중에 만나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당 시기에 대해 "빠르면 빠른수록 좋다"고 말했다.

홍 당선자는 그러나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없는 친박연대 비례 대표 등 일부 친박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복당이 아니다. 입당 절차가 따로 있다"고 말해 복당 논의를 이원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보람상조와 함께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람상조** 남광주 지점 민영상 010-9566-8114

보람상조는 30년 전통의 보람상조 1위 브랜드입니다. 보람상조는 보람상조 1위 브랜드입니다. 보람상조는 보람상조 1위 브랜드입니다.

**일중한의원**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고지혈증, 비만, 노년성 질환 전문 병원

일중한의원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영생의학과, 비만클리닉, 당뇨병클리닉, 고혈압클리닉, 동맥경화클리닉, 고지혈증클리닉, 노인성질환클리닉

남광주 지점 062-676-1075